



번영과 평화 부르는 경인년 새해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의 허리에 우뚝 솟아 있는 세계적인 명산 설악산 마등령에서 맑고 푸르른 동해바다에 드리운 운무 위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본다.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으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설악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설악산 마등령에서 바라본 일출. 2009년 6월 21일 촬영.

설악신문 신년 사진 공모 수상작. <글·사진 임흥빈 속초 교동장>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쌀은 생명이다.
우리 쌀을 지킵시다.**

고성오대미

▶음식점 전용쌀 판매 ▶주문즉시 가공판매

주문배달문의 ☎033)633-0040~1

*주문즉시 단 한포라도 가장까지 신속히 배달해 드립니다.

고성농협 속초직매장

경인년, 새 지역일꾼 뽑는다

6월 2일 지방선거...바빠진 정당·후보

경인년 새해에는 새로운 지역 일꾼을 뽑는 6·2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두고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는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가 현재로는 가장 큰 관심사다. 여기에 한나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민주당이나 무소속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올지도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속초·고성·양양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고, 2008년 6월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1표차로 뽑혔다.

속초시장은 현직인 채용생 시장을 비롯해 오정기 희망세상21속초지부장, 이병선 도의원, 임덕수 전 동우대학 부학장, 장세호 속초고 총동창회장, 홍우길 속초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임덕수 전 부학장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바라고 있다.

고성군수는 2008년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소속인 황종국 현 군수와 지난 보궐선거의 차점자인 윤승근 고성중고 총동문회장, 황병구 전 부군수가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명선 전 도의원은 민주당 배를 탈 예정이다.

양양군수는 이진호 현 군수와 김관호 양

양군번영회장, 박상형 전 군의원, 이기용 전 양양군 환경관리과장이 한나라당 공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006년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김남웅 전 인제부군수는 민주당 아니면 무소속으로, 정상철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선거는 속초의 경우 1선거구(영랑·금호·교동·청호동)는 김성근 현 시의회 의장과 주영래 속초시재향군인회장의 한나라당 공천경쟁이, 2선거구는 김시성 도의원의 단독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어든 고성과 양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양양 나선거구(손양·현북·현남)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구가 10명 이상씩 거론되고 있어 아직은 안개 속이다. 2006년 선거에 14명이 출마했던 고성 가선거(토성·죽왕·간성)는 무려 18명이 출마예상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모든 선거구가 경선을 원칙으로 3월말경에 공천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우선 새로운 인물 영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함준식 속초의료원노조위원장이 속초 1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지역 연고의 도비례대표 1명을 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6·2지선의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1일부터, 후보 등록은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이뤄진다. 장재환 기자

謹賀新年

경인년 새해 郡民의 萬福을 祈願합니다

지난 한해 郡民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밝아온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전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활동을 펼쳐
郡民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郡民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택춘 양양부군수 명퇴



전택춘 양양부군수가 지난 12월29일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임했다.

전 부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퇴임식을 자졌다.

춘천이 고향인 전택춘 부군수는 1973년 9월 춘성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강원도청 내무국 세정과, 감사실 등 도청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뒤 1998년 사무관으로, 2007년 1월1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2008년 1월1일자로 양양부군수로 취임했다. 전 부군수는 퇴임사에서 "이제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고 퇴임 후에도 양양군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경인년 반가워요

한국농사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일인경원 김삼기 대표가 심장병 어린이 치료차 중국을 방문한 지난해 12월 17일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사육 중인 호랑이 무리를 촬영했다. 이곳 사육장에는 500여 마리의 호랑이가 살고 있으며 이날 현지 기온은 영하 25℃에 달했다고 한다. <설악신문 신년사진 공모 수상작>

이춘우 실장 정년퇴임



이춘우 전 고성군기획감사실장(60)이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29일 정년 퇴임했다.

토성 천진이 고향인 이 전 기감실장은 동광중과 속초고, 동우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1968년 지방행정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5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고성군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토성면장, 현내면장,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거쳐 기획감사실장을 끝으로 41년9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이 전실장은 공로연수 기간 고성군 공동연합회장을 맡아 도민체전과 도지사기 공동대회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홍수 기자

속초부시장 송재명 · 양양부군수 이계동

1일자 인사발령...장 전 부시장 도청 경제정책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속초시 부시장에 송재명(56, 사진) 도 지역발전담당관이, 양양군 부군수에 이계동(57, 사진) 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임명됐다. 장철규 부시장은 강원도청 경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부시장은 4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간다.

송 부시장은 "국내에서 관광·해양자원 및 개발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속초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속초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출신으로 지난 73년 지방직 9급으로 평창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97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평창

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봉평면장, 종합민원실장, 민원봉사과장을 지냈으며, 2003년 도로 옮겨 환동해출장소 유통지원담당, 항만물류담당으로 근무했다. 이어 도 환경정책담당, 관광개발사업1담당 등을 거쳐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을 역임했다.

○...이계동 신임 양양부군수(57, 사진)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 부군수는 "평소에 꼭 근무하고 싶었던 곳이 양양군이었다"며 "양양군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부군수는 특히 "양양군은 도내 시군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지



송재명



이계동

역"이라며 "주민들과 더불어 이런 가능성을 살려 으름가는 자치단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춘천 출신으로 지난 76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부군수는 99년 설악수련원장 직무대리와 자치행정국 총무과 교통숙박팀장을 거쳐 2000년 사무관으로 승진, 청소년담당과 여론담당, 감사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직무대리를 지냈다.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의회사무처 정책지원전문위원과 체육청소년과장을 역임했다. 고명진·김주현 기자

2009 송년의 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전진



회장 장 세 호

영북지역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포초등학교 2009년 총동문회 송년의 밤을 찾아주신 내·외빈 및 지역주민, 경향각지 동문가족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과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동문가족, 지역주민여러분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포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장세호 올림



대포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 임상호 011 375 2428

- 회장 장세호 수석부회장 전광욱 부회장 최정길 김세원 정용하 김춘식 이영균 전상철 신명수 최영길 최영자 전태일 홍용길 한창환 사무국장 임상호 감사 최서호
- 김동식 총무부장 김철희 총무부차장 허장덕 황미경 사업부장 장복렬 사업부차장 김규성 문재용 장학부장 김진화 장학부차장 정연수 여성부장 한성일 여성부차장 김선희 천영옥
- 41회 회장 김택선 총무 고명복 42회 회장 전상철 총무 박만집 43회 회장 신명수 총무 진규재 44회 회장 전광욱 총무 한성일 45회 회장 박명근 총무 김선희
- 46회 회장 김중무 총무 정규홍 47회 회장 김근식 총무 전태일 48회 회장 최서호 총무 홍용길 49회 회장 이갑수 총무 김송자 50회 회장 김진화 총무 유영숙
- 51회 회장 최대선 총무 김동식 52회 회장 김규성 총무 김인수 53회 회장 허장덕 총무 황미경 54회 회장 안중국 총무 최중대 55회 회장 이근섭 총무 이영석
- 56회 회장 정시열 총무 박인성 57회 회장 이상용 총무 김대영 58회 회장 최순철 총무 안중석 59회 회장 김복일 총무 정연주 60회 회장 김동길 총무 김홍배
- 61회 회장 장재명 총무 정연범 62회 회장 변용희 총무 정연진 63회 회장 정연천 총무 전찬근 64회 회장 용동석 65회 회장 변태희 총무 성용익

방학 결식학생 2100여명 급식 지원

속초 음식점 · 도시락 등 병행...고성 · 양양 도시락 배달

겨울방학 중에 속초 · 고성 · 양양에서는 2,100여명의 결식 우려 학생들에게 급식 지원이 이뤄진다.

속초시는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방학에 1,422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급식 지원은 일반음식점(824명)과 도시락(501명), 단체급식소(96명), 한시적 부식지원(1명) 등의 방법으로 지원된다.

급식지원은 2월까지 이뤄지며, 1인 급식비는 지원방법과 대상에 따라 2500원~7000원이다.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지정 음식점(49개소)과 편의점(18개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기존의 급식권(종이) 대신 희망드림카드를 결제하게 된다.

속초시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은 2008년 여름방학 886명, 겨울방학 1,368명, 2009년 여름방학 1,760명으로 점차 늘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안 먹는 아동'과 '못 먹는 아동'을 구별해 선정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에는 인원이 감소했다.

고성군은 올해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 학생 4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난해 겨울방학에는 총 379명을 지원했다.

급식지원 방식은 100% 도시락 지원으로, 대명설악리조트 봉사회가 토성지역 결식학생을, 그 외의 지역은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오는 2월초 개학 때까지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된다.

양양군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방학 중 급식지원을 한다.

군은 지난 12월 16일 양양군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가정 학생 227명을 선정해 1일 3,000원을 지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양양지역아동센터, 꾸매그린지역아동센터, 홀로섬이 한마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54명은 지역아동센터내 급식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군은 겨울방학동안 실시되는 아동급식의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보건소 위생담당과 드림스타트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 식품취급시설 및 식재료 구입 및 관리,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고 가정식과 같은 영양가 있는 식단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결식학생이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 · 이용수 · 이우철기자

100대 과제 중 64개 완료 속초시 자체보고회 개최



속초시는 지난달 30일 100대 중점 추진과제 자체 보고회를 갖고 새해에는 속초 미래발전의 근간이 될 관광 · 해양 · 교통망 등의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린 자체 보고회에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100대 과제 중 완료사업 64%, 정상 추진과제 23%, 중장기 과제 및 재검토 분류사업 13%라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 중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 · 경영현대화,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 신규 국제항로 개설, 도심 군부대 이전 등 64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다. 고병진 기자

하조대 · 삼포해수욕장 '우수'

양양 하조대와 고성 삼포해수욕장이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09년도 해수욕장 평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시 · 도에서 추천한 해수욕장 314개소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서면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환경, 경관, 안전 등 4개 분야를 평가, 우수해수욕장 20개소를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양양 하조대해수욕장을 비롯해 4곳이 선정됐다. 이들 해수욕장은 환경개선사업비 3천여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양군은 강원도의 2009 해수욕장 운영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시상금 1백만원을, 현남면 지경해수욕장도 우수 읍면동 해수욕장으로 뽑혀 5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밖에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공로가 큰 양양군 현남면 원포해수욕장 김동훈 원포리장 등 민간인 및 공무원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간성 40관리대대 이전 마무리

고성군 도시계획도로 · 체육관 건립 추진

고성군 간성을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금수리 40관리대대의 이전 사업이 지난 12월 30일자로 모두 마무리됐다.

고성군은 지난 2008년 40관리대대 관할인 예비군 교육관 이전 사업 완료에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간성을 동호리 1,262㎡ 일원에 생활관과 탄약고, 창고 등 건물 신축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어 군은 12월부터 기부양여 절차를 진행해 국방부 소유의 40관리대대 부지 및 건물과 군유지인 군부대 신축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했으며, 기존 40관리대대 내에 있는 생활관과 탄

약고, 창고 등 건물 10동과 대대 안 연병장 부지 5,283㎡의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날 군장병들이 동호리 신축부대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모든 이전사업이 마무리 돼 간성을 도시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40관리대대가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마무리 하지 못한 상리~금수리 간 도시계획도로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운동장 연계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강현하수처리장 공사 순조

작년 12월 건축공사 등 완료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강현지역의 주거환경과 물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국 · 도비 및 군비 등 총 14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일 1,200㎡를 처리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 지난 12월 건축공사 및 차집 관로 공사를 준공했다.

지난 12월 준공된 사업은 침사지동 231㎡, 반응조동 820㎡, 게이트볼장 695㎡ 등 총 1,746㎡ 규모의 건축물과 차집관로 6.27km, 중개펌프장 5개소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은 4대강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전철의 조기착공이 그 대안이다.

경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속초총동문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2010년 신년인사회

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해 나가시는 자랑스러운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에도 동문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친목과 화합을 통한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코자 하니 동문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0년 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속초시 대포동 소재 『마레몬스호텔 대연회장』

- 1부행사: 2009년도 정기총회
- 2부행사: 총동문회장 아·취임식(이임회장: 신선익, 취임회장: 송금배)
- 3부행사: 신년인사회 및 만찬

2010년 새해 설악권 국회의원 · 자치단체장 · 의회의장 신년사

송훈석 국회의원

도약하는 새해를 기대하며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범띠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기축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여러

운 한해를 보내야만 했으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경제는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다시금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띠해

인 새해는 우리 모두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가 활짝 기지개를 펴 움추러 들었던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지역주민 모두가 번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과 주요 현안들이 계획대로 추진 되고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설악동 재정비, 오색케이블카 등 설악산 주요현안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등이 잘 추

진되고, 속초~춘천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강원도민의 염원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되고, 설악권 · 동해안권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용생 속초시장

환동해 관광 · 해양 중심도시로



새해는 민선 4기 시정 목표인 '환동해 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을 마무리 하고 시민여러분의 여망을 담아 국내를 넘어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명품도시'로 도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악로데오거리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마케팅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대포 제2농공단지 이어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대포항 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조성하고 적산 온천리조트개발, 속초 해수욕장 4계절 해수체험 관광지 개발, 영

랑호주변 관광지 조성, 설악동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민자유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두산항로 및 동북아해리 국제 신항로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 도시균형발전기를 조성,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공동체 구현,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 및 자치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새해에는 '환동해 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속초시의회 의장

시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새해 첫 아침에 떠오르는 힘찬 태양의 기운과 함께 금년 한해는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속초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주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지역 케이블 TV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방영, 민생 현장을 찾아 주민(단체)들과 격의 없는 간담회 개최, 교육 경비 지원조례 및 애향장학금 지원조례 의원 입법제정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0년 새해 속초시의회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오직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곁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경제회복의 고지, 8부 능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모습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열정, 그리고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종국 고성군수

희망과 꿈을 주는 군정 운영



지난해는 남북 관계의 경색과 금강산 관광 중단상태 장기화, 4년째 폐장된 알프스리조트, 그리고 표류 중인 국회의정연수원 등 안타까운 점도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경제도약과 인구증가 시책에 역점을 두겠으며,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연내 완공하고 입주희망 11개 업체 모두 향토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최적의 기업입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급변하는 농 · 어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 농업인을 양성하고, 우리의 농 · 어업에 해양심층수를 접목하여 친환경적

인 웰빙 농수산물 생산하는 등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보장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화진포, 송지호, 삼포 · 문암의 3대관광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성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환경과 휴양, 레포츠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황상연 고성군의회의장

열린의정 · 선진의정 구현 총력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 원자재 가격상승 등 나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장기화,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우리 군민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시발되었고, 개발촉구지구시범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어 군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선 5대 마지막 임기를 맞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인 원칙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군정의 균형발전을 통해 군민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양양군수

신동해안 중심도시로 '우뚝'



2010년 경인년은 참여와 혁신으로 열여가는 성숙된 군정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그린(green)에코 양양'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새해를 맞아 오색로프웨이와 종합스포츠타운, 해양레저단지조성,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골프장건립, 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및 장례식장 설치 등 주요 핵심 사업을 더욱 바르고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웰빙, 생명, 건강 등의 에코시대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동서 · 동해고속도로 시대를 앞두고 지역 경쟁력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바닷길인 양양 신항만 등 육로의 고속화를 토대로 항공과 해상교통의 인프라를 차곡 차곡 구축해 신동해안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겠습니다.

2010년은 한해의 출발인 동시에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경인년 새해는 그동안의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며 실질적인 군민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김준식 양양군의회의장

견제 · 협력 통해 신뢰 구축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이 착공되고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른 전국요트대회 개최, 낙산사의 원형복원 마무리,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사업 본격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민관이 하나가 돼 지혜를 모은 한 해였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우리군의회는 제5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의 다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특집

6·2 지방선거, 정당 움직임

한나라당 공천향방 관심...민주당 후보자 영입 전력

민노당, 도의원 출마...진보신당 비례대표만

6·2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입지자들이 몰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공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은 후보자 영입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도의원에 후보를 내고, 진보신당은 지역에서 도의원 비례대표만 낸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새해 들어 자치단체장들의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대비해 조직체계를 서서히 가동 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오는 2월까지 자치단체장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해벽두부터 경선에 대비한 설악권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선거인영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선이 실시될 경우 경선에 참여하는 자

치단체장 출마 입지자는 무소속 출마 기회가 사실상 제한돼, 경우에 따라서는 경선 실시 이전에 각 선거구별로 일부 입지자들의 탈당 및 무소속 출마선언, 출마포기 선언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속초당원협의회는 이같은 여론조사와 경선 등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 3월말경이나 돼야 각 시군 자치단체장 한나라당 공천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의 입지자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입지자 쏠림' 현상에 반가워 하면서도 공천 과정에서 입지자 난립에 따른 '공천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속초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속초지역 기초의원들의 경우 입지자들의 난립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공천 후유증의 재발이 우려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달까지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당원교육 및 중앙당 정책 홍보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속초고성양양지역 위원회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2월 중으로 구성돼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영입을 위해 1월 중순경 상무위원회를 구성, 공천 논의 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고성·양양지역의 단체장은 기본적으로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물찾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도의원도 마찬가지로 참신한 새로운 인물영입에 나선다. 또 지난 선거에서 복수공천으로 일부지역에서 논란을 빚었던 기초의원 공천은 단수공천 원칙을 확정하고 물밑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이같은 공천 방침은 도당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6·2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공천시기를 앞당겨 3월 중으로 공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영입을 통해 기존 정치구도를 바꾸고 진정한 지역발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기초의원들은 단수공천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중심의 차별화된 선거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도의원과 기초의원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속초 도의원 가선거구에 후보를 낼 예정이며, 기초의원은 후보자를 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속초와 양양 기초의원 선거에 각 1명씩 출마했었다. **진보신당** 진보신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추진위원회는 올해 1월 중에 지방선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하지만 속초·고성·양양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으며 도지사 선거와 연계해 지역에서 도의원 비례대표만 낸다는 방침이다. 김경석 당협추진위원장은 "지역에서는 서민 중심의 복지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명진·김주현·이용수 기자



선거 사무원들이 지난해 4월 29일 치러진 양양 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개표를 하고 있다.

송훈석 국회의원, 선별 지원 "무소속 연대 가능성 배제 않아"

무소속인 송훈석 국회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역할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연대(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인 송 의원은 전면에서 선별적 지원에 나

설 것"이라며 "현재 무소속 출마에상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고성·양양 도의원 1명 축소 확정

지방선거 지각변동 ... 국회의원·주민 "지역특성 외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로 광역의원 의원수가 조정됨에 따라 6·2지방선거에서 고성과 양양은 도의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돼 선거판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선거구에 대해 의원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1인당 평균 도내 인구수가 4만1,929명인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도의원 1명당 1만5,947명)과 양양군(1만4,529명),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 5개군은 평균 인구수의 하한선인 -60%를 벗어나 2명이던 도의원 정수가 1명으로 축소된다. 반면 춘천(12만7,443명), 원주(14만5,475명), 강릉시(11만1,604명)는 도내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한범위 +60%를 넘게 돼 도의원 정수가 현행 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성과 양양의 도의원 정수가 기존 2명

에서 1명으로 축소되면서 6·2지방선거판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은 도의원수 감소가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훈석 국회의원과의 이용삼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달 29일 지역특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최소 2인 이상의 광역의원이 유지될 수 있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현행법에서 시·도의원 정수를 2인 이상으로 보장한 것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농어촌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열악한 교통여건 등의 지역적 한계에도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해야 한다"며 "이번 조정안에 지역면적 및 발전도 등 지역특성이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명으로 통합되는 도의원 선거구단체장 선거구와 같아져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는데다 지역별 대결구도로 인한 지역갈등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구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토록 하는 여성의원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신년특집

6·2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 속초시

*출마자 소개순서는 본문 기사의 경우 <현직>에 이어 <기나다>순으로, 사진의 경우 <기나다>순으로 했습니다. 사진은 출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한해 게재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관심... 3~4명 출마 예상

속초시장

6·2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6명 정도이다.

현직인 채용생 시장(56)을 비롯해 오정기 희망세상21속초지부장(60), 이병선 도의원(46), 임덕수 전 동우대학 부학장(56), 장세호 속초고 총동창회장(61), 홍우길 속

초시의원(44) 등이다.

이들 가운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입지자는 채용생 시장과 이병선 도의원, 임덕수 전 동우대학 부학장, 장세호 총동창회장 등 4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덕수 전 동우대학 부학장은 민주당 공

천을 희망하고 있다.

속초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공천을 거머쥐기 위해 채용생

시장과 이병선 도의원, 장세호 총동창회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임덕수 전 동우대학 부학장이 선거대열에 합류했고,

민주당도 조만간 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3~4명이 출마할 것으로 지방정가는 내다 보고 있다. **고명진 기자**



오정기



이병선



임덕수



장세호



채용생

김성근 · 주영래 · 함준식 출마 표명

도의원 1선거구

도의원 1선거구(영랑·금호·교동·청호동) 출마자는 김성근 속초시의회의장(51)과 주영래 속초시재향군인회장(49), 함준식 속초의료원 노조위원장(43) 등 3명이다.

현재 김성근 의장의 합류로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김 의장과 주영래 회장간의 공



김성근



주영래



함준식

천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함준식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김시성 '무혈입성' 가능할까

도의원 2선거구

도의원 2선거구(노학·조양·대포동) 출마자는 김시성 도의원(46)과 최종현 송훈석 국회의원 정책보좌관(38) 등 2명이다.

하지만 현재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 최 보좌관이 정치상황에 따라 입장 변경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김시성



최종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김시성 도의원의 '무혈 입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고명진 기자**

전현직 3명 신인 7명 구도

시의원/가선거구

속초시 시의원 가선거구(영랑·금호·교동·청호동)는 현재 10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김병욱 현 의원(41), 김진기 현 부의장(47), 고기수 새마을번영회장(52), 김동익 한나라당 속초당원협의회 정책실장(47), 김일석 영랑새마을금고 이사장(52), 김의준 속초시 체육회 전 사무국장(60), 박명수 전 시의원(54), 신선익 법무사(49), 엄경선 투어설악닷컴 대표(44), 임동환 대포농공단지협의회장(54) 등이다.

김성근 의장이 도의원으로 빠져 나간 가선거구는 전 현직 의원 3명에 신인 7명의 구도로 형성되고 있

다.

김진기, 고기수, 김동익, 김일석, 김의준, 박명수, 신선익, 임동환은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김병욱은 민주당으로, 엄경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고명진 기자**



고기수



김병욱



김의준



김일석



김진기



박명수



신선익



엄경선



임동환

11명 출마 거론...경쟁 치열

시의원/나선거구

속초시 시의원 나선거구(노학·조양·대포동)는 현재 11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김강수 현 의원(62), 김명동 현 의원(62), 이금자 현 의원(55), 홍우길 현 의원(44), 강정길 안양 대립대 겸임교수(49), 김정환 전 의장(52), 김철 무림조경 대표(55), 마정환 오피스문구 대표(53), 문광철 속초지역 초등학교 총동창회 연합회장(60), 서종수 굿모닝건축사 대표(46), 양천석 진보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46)

등이다.

나선거구는 한나라당 소속의 현역의원 4명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양천석씨가 재도전에 나서고 김철, 마정환, 문광철, 서종수씨가 첫 도전에 나선다. 이 선거구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정길씨와 양천석씨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한나라당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명진 기자**



강정길



김강수



김명동



김정환



김철



마정환



문광철



서종수



양천석



이금자



홍우길

안종원 · 윤중학씨 출마 결정...김남욱씨 관망

교육위원 (속초고성양양인제선거구)

교육위원 선거가 올해 6·2 지방선거에서 첫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1~5선거구별로 1명씩 총 5명을 선출한

다.

제5선거구인 속초·고성·양양·인제 지역에서는 안종원 전 교육위원과 윤중학 전 속초초교 교장이 출마를 결정했고, 2006년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남욱



안종원



윤중학

김남욱 전 속초교육장은 "출마의사를 갖고 고민 중"으로,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위원 출마예상자로 언론에 거론됐던 김세영 고성교육장은 "현직에 있어 현재로서는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현규 전 속초양양교육장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전 교육위원과 윤 전 속초초교 교장은 모두 속초 출신이다. **장재환 기자**

신년특집

6·2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 고성군

2008년 보궐선거 양상 재현 가능성

고성군수

고성군수 선거를 불과 6개월 앞 둔 현재까지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가 없어 지난해 실시된 보궐선거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 향배와 새로운 인물의 출마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고성군수 선거에는 황종국 현 군수(72)와 윤승근 고성중고총동문회장(54), 황

병구 전 부군수(60), 신명선 전 도의원(64) 등 2008년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후보가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한봉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54)과 최태욱 전 재경고성군민회회장(55) 등도 타천 후보군으로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공천 향배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무소속인 황 군수는 현직이라는 이점과 지난 1년6개월간의 군정 성과를 토대로 재

선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승근 고성중고총동문회장과 황병구 전 부군수도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봉기 행안부 소청심사위원과 최태욱 전 재경고성군민회회장도 주위의 강력한 권유를 받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본인들은 출마의사를 정확하



신명선



윤승근



황병구



황종국

게 밝히지 않고 있어 공천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용수 기자

현역 2명 등 4명 출마 의사 표명

도의원

고성지역 도의원은 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1, 2선거구에서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일부 입지자들은 기초의원으로서 이미 선회했거나 아예 출마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행보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도의원 선거도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인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 공천 향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출마예상자 모두 당적이 한나라당이다.

현역인 이강덕 도의원(56)과 서동철 도

의원(66)이 각각 재선과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여기에 김용복 전 고성군수협조합장(54)과 김형봉 전 대진중고총동문회장(52)도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지역적으로 볼때 거진 2명과 토성 2명으로 소지역주의에 따른 표 갈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의원 선거에 나올 것으로



김용복



김형봉



서동철



이강덕

예상됐던 윤영락 전 군의회 의장(59)은 아직까지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용수 기자

자천타천 18명 출마 거론

고성군의원/가선거구

고성군 가선거구(토성·죽왕·간성)는 지난 지선 출마자들이 대거 나와 2006년 지선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는 모두 18명이다.

토성은 △김성명 군홍보위원(62) △김성환 고성군민주평통위원(52) △김진 전 동우대 총동창회장(50) △김창언 아야진3리 이장(47) △노장현 토성면변영회장(49) △박효동 군의원(51) △용광열 전 생활체육

고성군축구연합회 이사(44) △이병구 고성군민주평통위원(63) 등 8명이다.

죽왕은 △김창천 동광중운영위 부위원장(47) △송태겸 전 군의회 의장(64) △안훈모 공현진1리 이장(49) △윤영길 전 죽왕면장(64) △최인권 고성군불편연합회장(42) 등 5명이다.

간성은 △김동기 간성읍변영회감사(51) △박광수 강원한농대 총동문회 부회장(51) △최흥기 전 군의원(62) △함명준 주민협의회 사무국장(49) △함형완 군의회 부의장(50) 등 5명이다.

이용수 기자



김동기



김성명



김성환



김진



김창언



김창천



노장현



박광수



박효동



송태겸



안훈모



윤광열



윤영길



이병구



최인권



최흥기



함명준



함형완

출마 예상자 거진 · 현내 5명씩

고성군의원/나선거구

고성군 나선거구(거진·현내)는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가 10명에 이른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는 거진은 △고선기 전 군의원(62) △김영문 거진중고 총동문회장(53) △문명호 군의원(54) △장용수 전 고성교육청 공무원(58) △황상연 군의회 의장(54) 등 5명이다.

현내는 △강근우 전 군의원(68) △김일섭 현 대진초교 운영위원장(47) △김형실 현 대진중고 총동문회장(52) △임성용 전 현내

면변영회장(52) △송흥복 전 군공무원(63) 등 5명이다. 이번 지선에서 도의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던 황상연 군의회 의장은 도의원 수가 1명으로 줄면서 기초의원 출마로 변경해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용수 기자



강근우



고선기



김영문



김형실



문명호



송흥복



임성용



장용수



황상연

선거 사무 일정

예비후보 등록 3월 21일부터

지난 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선거사무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출마자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오는 2월 2일부터, 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 출마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인 3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운동(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나설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인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선거일전 60일까지인 4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27~28일까지, 6월 2일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용수 기자

신년특집

6·2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 양양군

다자구도에 한나라당 공천경쟁 '후끈'

양양군수

양양군수 선거 구도는 지난해까지 3파전으로 짜여졌으나, 3명이 추가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자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진호 현 군수(64)와 김관호 양양군번영회장(61), 김남웅 전 인제부군수(65), 박상형 전 군의원(54), 이기용 전 양양군 환경관리과장(54), 정상철 전 도의원(65) 등 6자구도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진호 현 군수와 김관호 번영회장, 박상형 전 군의원, 이기용 전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던 김남웅 전 인제부군수는 민주당 공천을 받을 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3수에 도전하는 정상철 전 도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무소속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양양군수 선거는 한나라당 공천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이 끝나야지만 3자 내지 4자구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다만 경선을 통한 공천경쟁이 불리하다고 판

단되면 일부 출마예상자의 탈당에 이은 무소속 출마도 예측되고 있어 이럴 경우, 후보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최근 한나라당 중앙당이 물갈이론을 표명화하면서 중앙인맥과 참신성, 도덕성, 행정경험 등을 내세운 입지자들이 늘어나 다자구도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양양군수 선거는 오색로 프웨이 설치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김관호 김남웅 박상형



이기용 이진호 정상철

선거구 통합 안개 속 구도

도의원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1명만 선출하는 양양 도의원 선거는 그야말로 혼잡한 양상이 점쳐지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임용식 현 의원(49)과 지난해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양수 현 의원(50)간의 현직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정중 한나라당 강원도당

지철정당위원회 수석부위원장(46), 박태석 전 군의원(64)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설악신문을 거쳐 현재 강원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호씨(44)가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어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아직 결정짓지는 못했지만 중량급의 한 인사가 장고 중이어서 양양 도의원 선거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

개 속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 중 임용식 현 의원과 김정중 수석부위원장, 이규호 강원일보 기자가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천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역 연고는 임용식 현 의원이 현남, 김양수·김정중·박태석씨가 양양읍, 이규호씨가 서면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2명에서 1명만 선출하는 도의원 선거 성격상 당 공천에 이어 지역발전과 시군통합에 대비해 누가 경쟁력



김양수 김정중 박태석 임용식

있는 인물인가를 놓고 인물론이 중요한 평가대대가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10명 중 9명 한나라당 공천 희망

양양군의원/가선거구

가선거구(양양읍·서면·강현면)는 3선에 도전하는 김현수 의원(57)을 비롯해 재선에 나서는 김일수(52)·박상혁(57) 의원, 비례대표 전정남 의원(52) 등 현직 4명이 모두 출마한다.

여기에 양양읍에서는 이견필 양양지역 자활센터장(59)과 김시범 생활체육배드민턴 양양군연합회장(58)이 재도전에 나서고 이종석 경동대 교수(36)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택철 양양읍장(59)도 거론되고 있다.

서면은 김호열 전 서광농협조합장(65)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강현면은 김진호 광석리장(54)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가선거구는 10명의 출마예상자 중 무소속인 이견필씨를 제외하고 9명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공천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시범 김일수 김진호



김현수 김호열 박상혁



이견필 이종석 전정남

한나라당 공천에 지역별 표심 관심

양양군의원/나선거구

나선거구(손양면·현북면·현남면)도 김우섭(49)·김준식(51)·오세만(50) 등 현직 3명 모두 3선 도전에 나선다.

손양면은 김준식 의원 외에 김의성 한국음악협회 양양지부장(48)이 재출마하고 현북면은 김광식 명지리장(52)과 고제철 경동대 관광학부 겸임교수(56)가 출마를 선언했다.

현남면은 전양병 현남면의용소방대장(58)과 최홍규 인구1리장(57)이 출사표를 던졌다.

나선거구는 8명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역시 한나라당 공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인구수가 가장 많은 현남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분산되고 현북면과 손양면에서 몰표가 나오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고제철 김광식 김우섭 김의성



김준식 오세만 전양병 최홍규

박정숙·최선남씨 물망

여성비례대표

여성비례대표는 도 여성비례대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최선남 자유총연맹 강원도여성협의회장과 박정숙 전 여성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박정숙 최선남

전정남 의원의 선출직 도전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여성비례대표로 누가 선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기초의원 선거구제 어떻게 되나요

6·2 지방선거를 5개월밖에 남겨 두지 않은 가운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이 고개를 들고 있어 출마예정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선거구별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야당은 소선거구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양 '해뜨미(米) 탐라이스' 첫 출하

지난해 250톤 생산...친환경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

판매촉진 홍보행사 벌여

양양에서 생산된 '해뜨미(米) 탐라이스'가 첫 출하됐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월29일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첫 생산된 '해뜨미 탐라이스'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날 첫 출하된 '해뜨미(米) 탐라이스'는 현남면 포매리 생산단지(단지회장 조병일) 27개 농가 50ha에서 생산된 쌀로, 지난해 생산량은 250톤이다.

양양 '해뜨미(米) 탐라이스'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타품종 혼입방지를 위해 종자 DNA분석과 품질관리를 해온 고품질 '운광벼' 단일품종으로, 완전미(도정 후 껍질이 남아 있거나 깨진 알곡이 없는 쌀)의 비율이 95%이상이며 단백질 함량이 6.5%이다.

또한 질소를 7kg/10a이하로 사용한 친환경 쌀로, 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도



고용달 양양농협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양양해뜨미 탐라이스 출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 후 30일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켜 최고의 밥맛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품질 검사와 함께 탐라이스 홈페이지에 생산 이력을 낱알이 공개,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현남면 포매리 탐라이스 생산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왕우령이, 토

양개량제, 미생물제 등 친환경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편 '탐라이스'는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쌀 브랜드로 육성되고 있으며,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쌀 전업농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양양해뜨미를 탐라이스로 본격 생산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속초시, 겨울나기 지원

속초시는 새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4개 분야 27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부문 투자사업과 관련한 재정 조기집행과 관급공사 발주로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호와 청년실업 해소, 서민일자리 제공을 위해 1일 130여 명이 참여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비수기에다 어한기까지 겹쳐 시민들의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중에 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농한기 농기계 수리교육

양양농기센터, 오는 2월까지

양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가 농한기를 맞아 '내방 농기계 수리교육'을 실시한다.

'내방 농기계 수리교육'은 농한기를 맞아 농업인들이 경운기, 관리기, 동력분무기 등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수리·정비할 수 있도록 고장 원인별 수리 및 정비기술을 습득케 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까지 운영된다.

'내방 농기계 수리교육'에 참가할 경우, 10만원까지 농기계 부품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수리교육에 참가할 농업인은 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고장원인별 부품이 준비된 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공작실로 방문, 교육과 동시에 직접 수리하면 된다. 김주현 기자

거진농협장선거 1월 19일 실시

김정만 · 박승로 · 최상량씨 출마 예정

제15대 거진농협조합장 선거가 새해 1월 1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3선 조합장인 이영권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출마예상자는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이영권 조합장에게 고배를 마신 최상량 전 거진농협 감사(63, 현내)가 재출마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정만 거진농협 대리(54, 거진)와 박승로 현 거진농협 감사(46, 현내)가 조합장 선거에 첫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로, 현내와 거진 지역구의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전초전이 될 것이라 예측이다.

거진농협조합장 출마 예상자가

40·50·60대로 각각 나뉜 가운데 이영권 현 조합장이 어느 후보에 힘을 보탬지에 따라 선거 판세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토성농협과 금강농협은 50대 초반의 조합장들로 모두 세대교차가 이뤄졌다.

거진농협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는 1월 19일 거진농협 2층 회의실과 현내 지점 등 2곳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거진농협은 거진지역 조합원 793명, 현내지역 조합원 298명 등 총 1,091명이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인공신장 · 혈액투석
건강검진

정내과 의원

- HDF 투석기계 · 중앙공급장치-

접근성이 좋고 편안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속초시 청학동 KT속초지사 건너편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주고 사랑받는 정내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00~오후 6:00
- 공휴일 · 토요일 : 오전 9:00~오후 2:00
(인공신장실 : 오전 6시~오후 11시)

진료과목

- 인공신장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상담)
- 일반내과 ● 소아과 ● 피부과

내과 전문의
신장전공 정미경

http://www.sokchohd.com(한글키워드 : 속초인공신장실, 속초정내과)

속초시 청학동 KT속초지사 건너편(인디안 속초점·우리약국·고려산부인과) / 진료상담 : ☎637-0757~8

**삼환아파트 건너편 도로
150m 구간에 인도 설치**



속초시 노학동 구 교동파출소~삼환아파트 도로(속초로)의 인도 설치작업이 지난달 사실상 마무리돼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해소되게 됐다.

속초시에 따르면 이 구간 중 24시간 할인마트~국민은행연수원 방면 150m 구간에 폭 2m의 인도 설치작업을 지난달 완공했다.

이 구간은 그동안 인도가 따로 없어 시민들이 차도를 통해 걷다 보니 6차로를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불안해 했다.

하지만 새로 조성된 인도가 끝난 지점부터는 보행자들이 도로 옆 상가의 주차장 부지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 인도의 추가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시는 연차적으로 인도 설치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명진 기자**

“이웃 어려움 보면 기꺼이 찾아가 도움”

신흥사 ‘자비 나눔 송년 대법회’...성금·쌀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주지 우송스님)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7시 마레몬스호텔에서 신행 단체와 자원봉사자, 후원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 나눔 송년 대법회’를 봉행, 속초지역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 6천만원 상당의 성금과 쌀, 부식 등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결식아동 100명과 빈곤가정 400세대로, 쌀 30kg과 부식, 생활비가 각각 전해졌다.

이날 우송 주지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전에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벗이 돼 주는 친구를 뜻하는 불칭지우(不請之友)에 관한 가르침이 있다”며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청하지 않아도 기꺼이 찾아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신흥사는 이번 자비 나눔 송년 대법회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대규모 자비 나



신흥사는 속초지역 결식아동과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자비 나눔 송년 대법회를 마레몬스호텔에서 봉행했다.

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바자회 수

익금과 신흥사 본·말사 스님, 신도 및 시민 성금 등으로 마련됐다. **이우철 기자**

고성서 토착비리 척결 결의



고성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12월30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창수 서장은 이날 “경찰서 전 직원 모두 공직비리 등 관련 첩보 수집에 노력하고 각종 유착비리 사범 발견 시 철저히 수사 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직원 대표들이 김창수 서장 앞에서 토착비리척결에 대한 결의사를 낭독하고 있다. **이용수 기자**

원암~천진도로 1공구 개통

2.5km 편도 2차선...2014년 전구간 완공

미시령관통도로와 고성 남부권을 직접 연결하는 원암~천진간 군도 4차선 확포장사업 1공구가 지난달 31일 개통됐다.

고성군은 “원암~천진간 군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 중 1공구인 원암리 현대콘도 앞~신평리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입구까지 2.5km 구간 편도 2차선 공사가 완료돼 연말연시 해맞이 축제에 맞춰 이날 낮 12시부터 개통하게 됐다”

고 밝혔다.

군은 이어 2010년부터 2공구 사업에 착수해 2014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군도 12호선 원암~천진간 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총 연장 8.5km 길이로 모두 8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군은 당초 4차선 확장 사업을 2005년 발주, 2010년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난항으로 4년만에 1

공구 공사만 완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신평리~천진리 천진예식장까지 6km의 2공구 사업 예산을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비(290억원)와 교부세(136억원)로 총당기로 하고, 올해 31억5,000만원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201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구간의 도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미시령관통도로에서 고성 남부권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져 고성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사 여건에 따라 전 구간 개통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수 있으나, 2공구 사업 예산은 대부분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INDIAN
RETURN TO NATURE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T속초지사 건너편 (정내과/고려산부인과/우리약국 1층) 인디안속초점 ☎635-1236

고성 653만m²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

거진읍·현내 주거지...군부대 동의 없이 건물 신·증축

고성군 거진읍과 현내면 주거 밀집지역이 올해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 3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 고성군 등 7개 관할부대 및 행정기관에서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약 896만m²를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12월 31일자로 해당지역을 해제·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성지역은 현내면의 대진과 초도, 거진읍의 시가지와 송포, 반암 등 주거밀집지역 653만6,445m²가 기존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올해부터 해당지역은 군부대 동의 없이 건물 신·증축이 완전 자유로워지는 등 반세기 넘게 도시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꾸준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해 왔고, 군부대도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전국에서

가장 넓은 부지가 해제된 것 같다”며 “아직 해결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 또는 완화로 조정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4월 군부대 규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에 △대진초도 주거밀집지역 △화진포관광지 개발지구 △간성거진도시계획구역 △가진·향목주거밀집지역 △용촌주거밀집지구 △국회연수원예정부지 △성대용암주거밀집지역 △건봉사 등공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2,360만7,848m²에 대해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요구했었다.

이용수 기자 ella92@goseong.org

동우대학 이전 반대 5일부터 서명운동

동우대학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5일 거리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새해 벽두부터 동우대학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범대위는 5일 오후 1시30분 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1차 거리서명운동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서독약국 앞과 청학사거리, 고부속사 앞, 리빙마트 앞, 조양빵마을 앞, 시외버스터미널, 먹거리촌, 엑스포공원 등 모두 21개소에서 동우대학 이전 반대 거리서명을 받기로 했다.

거리서명운동에는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와 속초경찰서 등 시민단체, 각 학교 총동창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123개 단체가 참여한다.

범대위는 당초 지난달 30일 거리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연말연시에 따른 각 참여단체들의 일정을 고려해 5일로 연기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동우대 이전 반대 현수막 논란

동우대 “불법 광고물” 시에 철거 요청

동우대학 일부 학과의 원주 이전에 반발해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달 중순 도심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 이

전 반대 현수막을 내걸자, 동우대학측이 철거를 요청하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 도심지역에 동



동우대학 원주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속초도심에 부착된 것과 관련해 동우대학측이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수막 철거 전의 모습

우대학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첨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하순 동우대학측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범대위측에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 현재 도심과 주요 교차로에 부착된 대부분의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채용생 시장이 현재 동우대학 원주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동우대학측이 현수막 철거 민원을 제기하자 한때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준섭 범대위 사무국장은 “문제의 발단은 동우대학이 당초 보건계열 등 유망학과를 속초캠퍼스에 잔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긴데서 시작됐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법적인 잣대로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황당하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소방관, 소방차에 치여 숨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20분경 속초시 영랑동 영랑119안전센터 차고 앞에서 소방관 황모씨(39, 소방교)가 동료 김모씨(43, 소방위)가 몰던 소방펌프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숨진 황씨와 소방펌프차 운전자 김씨는 이날 119안전센터 내에서 자체 교육훈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가 교육을 마치고 후진으로 차고에 주차하려는 소방펌프 차량을 뒤에서 유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초대합니다

2009년 「기축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2010년 「경인년」 새해 재경 속초시민회원 및 속초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재경 속초시민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속초 출향시민과 속초시민 여러분들을 『재경 속초시민회 2010년 정기총회 겸 신년 하례식』에 초대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고향의 선·후배님, 그리고 정다운 동료들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2010년 1월 21일 (목) 오후 6시
행사전 공연과 만찬 및 축하연대 고가경품추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오후6시)
- 장소**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그랜드 볼룸(02-2275-1101)
서울 중구 장충동(동대후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1번, 6번 출구
- 참석대상** 재경 속초시민회원 및 속초시민(당일 행사 참석비용 없음)

연회비납부안내 [농협 1144-17-014211 예금주 재경속초시민회] 2만원이상 입니다. 식사 예약관례로 참석여부를 1월 8일(금)까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재희 010-8251-5966 장은미 011-9718-4203 사무실 02-333-1104)



재경 속초 시민회 회장 손문영 배상



재경 속초시민회 | 회장 손문영 수석부회장 홍욱 사무총장 태광훈 사무차장 윤재희 장은미 총무국장 이상길 대외협력국장 윤흥진 홍보국장 이미옥 여성국장 양미경 조직국장 박진규 행사국장 양희정

동북아 신항로 뱃고동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길 터야

새해 경인년에는 동북아 신항로로 재취항하는 여객선의 힘찬 뱃고동 소리를 속초항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새해 벽두가 밝았지만 아직은 “글쎄요”라는 답변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재취항 전망이 현재로서는 그리 밝지 않다는 뜻이다.

용선 확보 등의 문제로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휴항신고 기한(4월)이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용선확보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로 지난해 큰 하강곡선을 그린 중고자동차 수출시장도 러시아가 또 다시 관세인상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해 경인년 새해를 맞은 속초항의 분위기는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동북아 신항로 재취항 전망

속초항~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잇는 동북아 신항로의 운항중단이 벌써 3개월을 넘어 100여일째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 신항로는 지난 7월 28일 이 항로에 취항한 1만6,485톤급의 퀴칭다오호의 용선계약이 9월 19일자로 만료되면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동북아훼리(주)측은 일본 선적의 히류(HILY)21호를 신항로에 투입하기로 하고, 선박 인수작업에 매진해 왔다.

동북아훼리(주)는 일본 철도공사 소유의 1만4,700톤급 히류 21호를 일본측 출자회사인 북동아시아제팬(주)이 인수해 동북아

훼리에 용선하는 방식으로 신항로의 재취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히류 21호의 인수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 2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선박 수리문제로 현재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동북아훼리는 현재 신항로에 투입할 선박 용선계약이 늦어지면서 운항중단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 오는 4월까지 휴항신고를 한 상태이다.

더욱이 휴항신고 기한이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신항로의 뱃고동은 울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지역사회가 답답해하고 있다.

현재 북동아시아제팬이 오는 2월 사회실험비용(시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험 비용)으로 자체적으로 선박을 투입, 신항로에서의 실험운항만 계획하고 있을 뿐 선박용선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일본측에서 3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신항로 투입 선박을 물색 중에 있어, 휴항신고가 끝나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낙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고자동차 수출 부진

지난해는 러시아의 수입 관세 인상 여파로 속초항의 중고자동차 수출 메카 이미지

가 크게 구겨진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속초항을 통해 2,511대가 수출됐으나, 지난해에는 12월 20일까지 780여대가 수출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속초항을 통한 중고자동차 수출은 지난 2003년 33대를 시작으로 2004년 1,480대, 2005년 2,217대, 2006년 1,954대, 2007년 3,473대로 해마다 증가해 속초항이 중고자동차의 수출 기지로 급부상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올해 초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배기량 2,500cc SUV의 경우 연식 3~5년은 2008년보다 176%, 3년 미만은 19.4%나 관세를 올려 지난 한해 중고자동차 수출이 780여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속초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에 나섰던 20여개 수출업체들이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몇 개 업체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또 수출부진으로 2007년 한차례, 2008년 두차례 열렸던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도 지난해에는 열리지 못했으며, 전시차량으로 가득했던 향만지원센터 광장과 향만부지도 수개월째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측이 지난해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관세인상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데다, 6월 이후에도 관세 인상조치가 풀린다는 보장도 없어 속초항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병진 기자



경인년 새해에는 동북아 신항로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취항식때의 광경.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2009년 국가경쟁력 CEO 최고 대상 수상 및 종합 청렴도 공기업 부분 1위를 달성 기관

강원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맞이 요금 할인

소아 경로 유공자 군·경공무원 : 20%
 장애인 10~30% : 1-4급 동반보호자 포함 강원도민 :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케이아 익스프레스에어 www.keair.co.kr 접속 바랍니다.

지난 2008년 항공사가 경영수익상의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공항이 군민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9년 08월 소형항공기가 재 취항했습니다.

양양공항에는 현재 KEA 코리어 익스프레스 에어가 주 5일 김포(서울) - 양양 - 김해(부산) 항공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부터는 2호기를 도입해 매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는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강원도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보호자 포함), 군·경에 대해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문의 : yangyang@airport.co.kr

양양국제공항이용촉진 TTF(강원도 양양군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직원 일동

신년특집

고향 오색서 다시 한계령을 노래하다

굽이굽이 휘어진 오색령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어준 고갯길이다.

지금은 한계령으로 많이 불리는 오색령은 그래서 아직도 때가 묻지 않은 자연의 내음이 곳곳에서 물씬 풍겨난다. 사람들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한계령 오색을 떠올리며 가슴을 설렌다.

산사람과 노래 한계령의 운명적 만남

형형색색 찬란한 오색에서 태어나 영원히 '산사람'이기를 원했던 시인 정덕수. 그가 자신의 고향인 오색 오목골에서 다시 한계령을 말한다.

양양 서면 오색의 정덕수라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85년 통기타 가수 양희은이 불러 크게 히트 시킨 대중가요 '한계령'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라고 하면 이내 친근한 사람으로 다가 선다. 지금껏 오색의 산사람으로 살아온 시인 정덕수에게 노래 한계령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었는지 모른다. 가슴에 사무친 슬픔을 달래는 시였다.

오색 오목골에서 태어나 오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훑아가며 오색령을 헤매며 나무를 하던 그가 주옥같은 '한계령'을 쓴 것은 1981년 10월 3일. 하루 먹고 삼일을 굶던 당시 정덕수에게 유일한 희망은 한계령 고갯길이었다. 단풍철 연휴가 시작되자 청년 정덕수는 매일 그랬듯이 생계를 위해 한계령 정상까지 오르며 땀과 산나물을 채취해야 했다. 그에게 유일한 벗은 시에도 나오듯 한계령 고갯길과 남설악 능선에 우뚝 솟은 산이었다.

모나미 불펜과 편지지를 꾸겨 주머니에 넣고 대청봉을 올랐던 그는 한계령 정상에서 하산하면서 지금의 휴게소 인근에서 한계령을 써 내려갔다. 그의 시 2연에 나오듯 '저 산은, 추억이 아파 우는 내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처럼 그는 어릴 적 아픈 상처를 한계령의 자연에서 위로받았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 파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시인 정덕수는 자연이 그대로 숨 쉬는 오색에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움을 갈구했다.

그는 문단에 등단한 유명 시인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터전에서 살아온 삶과 자연을 시에 담아 노래했을 뿐이다.

노래 '한계령'의 탄생은 작곡가 하덕규가 1983년 미리 만든 곡에 붙일 노랫말을 찾던 중, 우연히 정덕수가 쓴 시 한계령을 발견하면서 이뤄졌다. 84년 시인과 촌장이 처음 부른 '한계령'은 이후 85년 한국의 간판 통기타 가수인 양희은이 부르면서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요로 완성됐다. "한계령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은 곡을 만나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고 국민들의 가슴에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행운일 수도 있고 작곡가가 행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



시인 정덕수가 28년 전 한계령을 쓴 자리에서 과거의 상념에 젖어 오색의 산하를 바라보고 있다. 당시 시를 쓴 자리는 전망대로 바뀌었고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는 한계령 휴게소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굽이굽이 휘어진 한계령 고갯길은 늘 그대로다.

다. 어쨌든 잊지 않고 지금까지 한계령을 불러주는 국민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인 정덕수의 삶은 '한계령'에서 보듯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한계령'을 쓰고 7년이 지난 뒤에야 '한계령'이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84년 서울 음악다방에서 하덕규씨를 만나 한계령을 읊어주고 하씨가 그것을 메모했을 뿐, 시인과 촌장에 이어 양희은씨가 부른 노래가 자신의 시라는 사실을 몰랐다.

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당시 그는 고향 오색을 생각하며 대청봉에 올라 등반객들과 어울려 산장에 묵었는데, 그 때 여대생들이 부르던 '한계령'이 자신이 쓴 시와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보니 대부분 자신의 시를 인용한 것이었다.

시를 쓴다고는 하지만 생활이 그리 넉넉지 않던 정덕수는 당시 저작권법이 정비되지 않은데다, 생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작사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노래가 나오지 24년만인 지난 2007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한계령의 작사가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저작권협회 DB에는 한계령의 작사가가 기존 하덕규에서 정덕수로 변경 수록돼 있다.

바람처럼 다시 오색 한계령으로 돌아와

시인 정덕수는 그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삶이 뿌리 깊이 내린 오색의 자연과 닮은 꼴이라서 그럴까. 그는 2002년 <한계령에서>라는 첫 시집을 낸 뒤 지금까지 3권의 시집을 펴냈다. 그것도 끊임없이 자연에 속삭이며 하나 되려는 예전의 순수함 그 몫으로 오색령을 말하고 있다.

양희은의 노래 '한계령'

작사가 시인 정덕수

시인 정덕수는 그동안 바람처럼 떠돌던 삶을 정리하고 지난 2001년 고향 오색으로 돌아와 변해가는 오색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인년 새해를 앞두고 오색에서 만난 그는 자신이 28년 전에 한계령을 썼던 그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땐 그리움, 다시 와서는 새로움이 있다"고 소회했다.

'차갑고 반듯한 선비'라는 의미에서 한사(寒士)를 호로 붙인 정덕수는 기축년을 뒤로 하고 경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자신의 시적 상상력이 패운 오색에 자연의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계령 연작시 20여편을 쓰면서 오색령을 알리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으로 한계령 오색이 이미 현대문명의 중심으로 빠져들고 있는 만큼, 오목골의 너와 집, 돌담길, 나무하는 산골의 풍경, 과거 지나던 옛길 등 과거 오색과 한계령을 지탱해주던 전통적인 삶의 풍경들을 소중하게 살려내야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사람은 언제나 고향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고향에서 찾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이들에게 고향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랫말 한계령에 희로애락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향 오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색 그리고 한계령은 그래서 제게는 어머니의 품이고 또 더 자유로워야 할 대상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이 지나면 다시 산나물을 캐러 나간다는 정덕수는 자연이 늘 그래왔듯이 오색 한계령을 휘어감은 바람이나 구름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지키고 서 있다.

김주현 기자

한계령에서

정덕수

온종일 서북주릉(西北紬綾)을 헤매며 걸어왔다.
안개구름에 길을 잃고
안개구름에 흠뻑 젖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 일생 고스란히
천지창조 전의 혼돈
혼돈 중에 헤메일지.
삼만육천오백년을 덮고
완숙한 늙음을 맞이하였을 때
절망과 체념 사이에 희망이 존재한다면
담배 연기빛 푸른 별은 돌을까

저 산은,
추억이 아파 우는 내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상처 아린 옛 이야기로
눈물 젖은 계곡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구름인 양 떠도는 내게
웃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홀로 늙어가는 아버지
지친 한숨 빗물 되어
빈 가슴을 쓸어 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온종일 헤매던 중에 가시덤불에 찢겼나 보다
팔뚝과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 젖은 옷자락에
피나무 잎새 번진 불길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증(愛憎)의 꽃으로 핀다
찬 빛속
공초처럼 비틀어진 풀포기 사이 하얀 구절초
열 할 작은 아이가
무서움에 도망치듯 총총이 걸어가던
굽이 많은 길
아스라한 추억 부수며
관광버스가 지나친다.

저 산은
젖은 담배 태우는 내게
내려가라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서북주릉 휘몰아온 바람
함성 되어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 1981년 10월 3일 한계령에서 고향 오색을 보며

《청소년복지학교의 희망나누기 캠페인 실시》

중학교 신입생 교복해주기 운동

- 지역 내에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나누기 교복해주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

※ 후원자 모집

- ▶ 교복 후원해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 ▶ 속초시민 누구나 참여 요망
- ▶ 금 액 : 10,000원 이상 성의껏 가능
- ▶ 계좌번호 : ○ 농 협 : 251-01-347570 / 예금주 :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 농 협 : 301-0011-8324-71 / 예금주 : 설악신문사
- ▶ 연락처 : ○ 사회복지협의회 : 033.633-1363, 637-1363
○ (주)설악신문사 : 033.636-2222~6

※ 후원 해주신 분 (2009년 12월 현재)

- (주)진수산 김재기대표
- (주)솔로몬산업 유종국대표
- 김희근 변호사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박홍수본부장
- 박태훈 한의원 박태훈 원장
- 푸른약국 김한식대표
- 동명새마을금고 김현달이사장
- 마레몬스호텔 김상철총지배인
- kt&g 속초지점
- 현대치과의원 원창덕 원장
-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최영수
- 트리토네마린 서인준 대표
- (재) 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 보고건설 장구봉대표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박삼기 지부장
- 정진용치과의원 정진용원장
- (주) 대명 최명규
- 지리정보사대표 최준형

사회복지법인 속 초 시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사회복지
법 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 “아이 문화” 프로그램 모집

- ▲ 일 시 : 2010. 2. 1~2011. 1. 31(12개월)
- ▲ 장 소 : 고성군 5개읍면
- ▲ 대 상 : 고성군관내 아동00명 / 담당교사 0명(구비서류-고성군홈페이지이용)
- ▲ 내 용 : 특기적성 교육비지원 - 태권도/피아노학원비지원
- 일주 6회, 1회 1시간
- ▲ 프로그램 : 정서적 안정
- 멘토 : 까닭도 없이 불안해하고 산만한 아이들의 우울증 예방
- 일주 2회, 1회 1시간(담당교사 1인당12명 멘토)
- ▲ 우선순위 : 1.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
2.차상위, 한부모 가정
3.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 ▲ 자부담 : 개인별 월30,000원
- ▲ 수 강 신 청
- 아동 : 각 읍면 사무소(주민생활지원) -교사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682-7604)



글라스박스 안경

누진다초점 안경을 썼는데 어지로우십니까?

방문해 주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신검안시설로 정확한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안경은 사는것이 아니라 맞추는것 입니다!



유리상자

대표 박형근(안경사) 속초고 49회

GLASSBOX

속초시 중앙동 속초우체국 옆 건물 뒤 주차장 완비

☎ 033)636-3232

문화예술계 새해 소망 - 극단 굴렁쇠 김귀선 대표가 말하는 '소극장'

“연중 현장감 · 생동감 넘치는 공연”

“기존 유희공간 리모델링도 가능”

새해가 찾아왔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 이것만은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마음에 담게 된다. 극단 굴렁쇠 김귀선 대표도 매년 꿈꾸는 바람이 하나 있다. 연중 끊임 없이 공연이 열리고, 배우와 관객이 좀 더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연전문 소극장이 생겨나는 것.



극단 굴렁쇠 김귀선 대표가 문화회관 앞에서 소극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속초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문화회관 대강당으로 한정돼 있어요. 이 때문에 작품 선정이나 무대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소극장은 다릅니다.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좁아져 서로 교감할 수 있고, 다양한 시도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극장은 연극을 비롯해 모든 공연예술의 토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소극장은 300석 이하 규모의 공연장을 이르는 말로, 600여 석의 문화회관 대

강당은 중극장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중극장이 무대와 객석이 고정형인 반면, 소극장은 무대와 객석의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이다. 무대와 객석의 배치가 자유로운 공간이라면 공연 기획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

연극의 경우 더욱 그렇다. 배우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육성 연기가 가능하고 배우들의 표정연기까지 살필 수 있다.

“소극장의 강점은 무대의 제약을 벗어

나는 것입니다. 500~600명의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도한 오버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고, 규모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느라 애를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연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소극장을 새로 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 없이, 기존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 소극장의 형태를 갖추기만 해도 공연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춘천을 대표하는 ‘봄내극장’도 2001년 춘천시가 교회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한 것이다. 봄내극장에서는 연중 공연이 열리고 있다.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이나 연주회도 열린다. 최근 각종 음악동호회가 생겨나면서 소극장은 더욱 환영받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장감과 생동감이 넘치고 배우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 이는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라며 “속초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소극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우철 기자

러시아 청소년예술단

6일 속초서 초청공연

우리나라와 러시아 청소년들이 문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속초예총과 (사)한국체육진흥회 설악권지부는 오는 6일 오후 4시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러시아 청소년예술단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러시아청소년예술단인 ‘뜨보르체 스트보’와 ‘프로프소유즈페데라치야’가 러시아클래식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전통 민속무용 ‘금소나기멜로디’ 등을 선보이면, 우리나라 ‘양속희무용단’이 검무, ‘인피니티소울’이 비-보이 공연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청소년예술단은 매년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방한하고 있으며, 올해는 3일~7일 4박5일의 일정으로 입국했다. 올해 방한한 러시아방문단은 130여명이다. 이우철 기자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

작년까지 3917명 마쳐

2008년부터 진행된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12월 30일 서울 통일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은 이북5도위원회와 속초시가 주관하고 통일연구원이 조사 실무를 담당, 전국 각지의 이북도민 1·2세대를 대상으로 피난 전 북한에서의 생활상과 한국전쟁 당시 피난 생활, 남한 정착과정 등을 구술 및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이다. 2013년까지 계속된다.

2008년에는 강원지역 주민 1800명, 지난해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주민 1917명의 구술조사 및 영상촬영을 마쳤다.

정종천 속초시박물관 학예담당은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사업은 실항민문화연구를 위한 최초의 학술조사로서, 실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증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남북통일 후에도 가족·친지간의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우철 기자

한국사협속초지부장 김창환 선출

한국미협속초지부장 김동하 유임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장에 김창환 감사가 선출됐다.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장은 김동하 현 지부장이 유임됐다.

김창환 지부장은 회룡 세미누드공모전 ‘금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했으며, 내설악사진동우회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풍경사진을 주로 촬영하는 그의 작품

이 ‘계룡스파텔’, ‘부평 사진역사박물관’, ‘인천북구도서관’, ‘육군항공학교 계백관’에 영구 전시돼 있다.

육군 헬기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육본이 마련한 ‘PACC-3/PAMS-27’과 ‘Defence Asia 2004’에서 사진팀장을 맡기도 했다.

김동하 지부장은 대한민국서예전람회



김창환

김동하

(서가협) 초대작가로 한중서화부흥협회 이사 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속초서에한문학원 원장으로, 신지원에서 출간한 사자소학과 한자능력검정시험(7~2급) 등을 집필했다. 이우철 기자

경인년 새해마다 새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새해의 작은소망은 억만금 보석보다 소중한 하루 눈부신 은총의날을 하나님은 올해도 삼백예수 다섯개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 아직은 많이 서툰 인생의 화가이지만 그 하루 하루의 매 순간을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곱고 순수한 색깔로 예쁘게, 보람있게 채색하고 싶습니다. 삼백예수다섯개의 선물에서 몇 개 꺼내 이미 써버렸지만 새해의 다짐대로 남은 소중한 날들을 기쁨이 되는 곳에, 아름다운곳에 써야겠습니다.

경인년 희망도 그리워한만큼 빨리 울거리는 바람만큼 빨리 돌아온 설 복만땅, 행복만땅 받으시옵고 때문지 않는 마음과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는 건 행복입니다.

항상 가내와 하시는 사업이 잘되시길 믿음직한은 두손 곱게 모아봅니다.

설악골에서 천일안경콘택트, 보청기 대표 김상기 배상





2010년 설악권 주민 새해 소망



이경선
속초시 공무원

“지역 축제 호응 얻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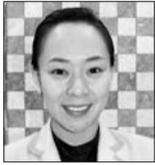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임용된 속초시 관광기획계 새내기 공무원 이경선씨(31)는 “아직 공직에 입문한지 두 달도 안돼 업무에 미숙한 면도 있는데, 새해에는 업무에 더욱 익숙해지길 바란다”며 “불축제가 무산돼 아쉽지만, 새해 개최되는 다른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희자/고성군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

“공명선거로 지역 화합을”

고성군선관위 부정선거감시단 김희자씨는 (46, 거진) “올해는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해로, 모든 후보자들이 공명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새해엔 저를 비롯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건강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황보라/대명솔비치 운영지원팀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면”

대명솔비치 운영지원팀 황보라씨(27)는 “동해안의 최고 관광지인 양양지역에 새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황씨는 최고 관광시설답게 내년에도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고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 관광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김영훈/중앙재래시장 사무국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기대”

김영훈 중앙재래시장 사무국장(53, 사진)은 “중앙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이제 마무리된 만큼, 새해에는 중앙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지금보다 더 장사가 잘되고 신바람 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상인과 고객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경미 주부

“웃는 날 많은 한해 되길”

주부 장경미씨(36, 간성 신안리)는 “지난해는 경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남편과 함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기가 잘 풀려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웃는 날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형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아들 준형이와 어머니도 지난해만큼 건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정무/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지역문화 활성화 되길”

속초문화원 사업과장 이정무씨(34)는 “경기가 위축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계”라며 “올해는 경기가 회복돼 지역 문화가 활성화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혼인 이 과장은 아울러 올해 평생을 함께 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랐다.



최혜영 양양 태양식품

“상인들 주름 활짝 펴지길”

10년간 양양 재래시장에서 태양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최혜영씨(55)는 “경인년 새해에는 지역경제가 활 살아나 양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의 주름도 활짝 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전했다. 특히 재래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많이 찾아줘야 한다며 남편과 아이들 모두 건강하길 기원했다.



임현준/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후원자 더 많이 늘었으면”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인 임현준씨(26)는 “경기가 풀려 복지관에 도움을 주는 후원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웃들이 복지관의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계발에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유를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권춘산 주부/속초시교동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속초시 교동에 사는 주부 권춘산씨(64)는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올해 가족들이 크게 아프지 않아 무난한 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손녀 효림이도 아프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막내(30)도 얼른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했다.



박기수/양양 서면 한우농장

“올해도 한우사랑 이어지길”

38년째 서면 북평리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박기수씨(67)는 “지난해 우리 한우가 경쟁력이 높아져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만큼 올해도 한우가 제 값에 잘 팔렸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소망했다. 한우를 키워 팔 셋을 지역에 시집보낸 박씨는 경인년에도 자식과 사위, 손자들 모두 건강하길 기원했다.



이종기(속초수협 총무지도과장

“새해엔 고기 많이 잡혔으면”

이종기 속초수협 총무지도과장(39, 사진)은 “올해는 어황부진 속에서도 그나마 어가가 지난해보다 올라 어민들의 근심이 많이 사라진 한해였다”며 “새해는 항포구마다 많은 고기들이 잡혀 어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한해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관록 택시기사

“지역발전으로 경기 나아지길”

택시기사 전관록씨(47, 거진 초계리)는 “간성은 고성군의 군청 소재지인데도 관광객이 머물러 쉴 수 있는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지역경기가 더욱 어렵고, 지역의 우수인재도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다”며 “올해부터 차츰 지역발전이 이뤄져 지역경기가 살아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범죄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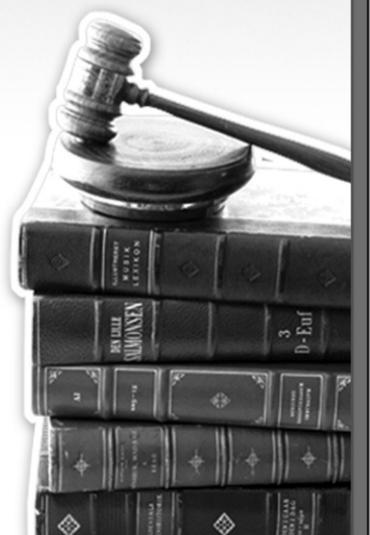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의료·법률·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 상담지원 : 전화상담 · 면접상담 · 방문(출장)상담
- 의료지원 : 병원안내 및 동행,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 의료비 지원
- 법률지원 : 형사조정 · 정보제공 · 수사기관 법정동행
- 경제적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 · 경제적지원 · 학자금지원 · 취업알선

법무부 사단법인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 033)638-1111 | 속초시 동명동 280-2 속초지청 정문 앞 동명빌딩 2층



11년간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빵 전해

양양 '빵 천사' 김상기씨...제과제빵 기술 전수

“배운 기술이 제과제빵이라 어려운 이웃들이 열심히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죠.”

양양여성회관 제과제빵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기씨(42, 사진)는 자신이 만든 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한다.

7년간 양양시장 안에서 빵굽터를 운영해 온 그는 지난 98년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면 정다운 마을에 매월 사랑의 빵을 전해오고 있다.

특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빵 봉사를 해

온 김씨는 양양에서 '빵 천사'로 통할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 2004년 빵굽터가 잘 안돼 문을 닫고 '컨츄리꼬꼬'라는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사랑의 빵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요즘은 제과제빵 기술 전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제과제빵 강사비도 사랑의 빵을 만드는데 다시 환원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김씨는 빵집을 운영하던 예전만큼 많은 빵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과 드림스타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중증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등 어려운 이웃들이 제가 만든 빵을 먹으며 환한 미소를 지을 때면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11년간 해오고 있는 사랑의 빵 봉사가 그에게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다문화가정이 가장 쉽게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제과제빵이고, 봉사단체 회원들도 직접 빵을 구워 전달하면 단순히 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양지회 김종숙씨는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빵 봉사를 하고 있는 김상기씨야말로 겨울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천사”라며 “제과제빵 기술 전수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케익 30여개를 직접 만들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기탁하기도 했다”고 칭찬했다.

서면 정다운 마을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부인 이상림씨(38)와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자고 백년가약을 맺고 지난달 늦은 장가를 든 김상기씨는 가끔씩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관심만 갖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봉사는 시작된다고 미소를 지었다.

김주현 기자

낚시사이트에 어획정보 올려 관광객 유치

고성 공현진 이창덕씨...형 이창식과 우애도 깊어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대부분 어촌지역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의 한 어업인이 인터넷을 활용, 배낚시 관광객을 유치해 마을 경기와 지역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에서 '창명호' 선주인 이창덕씨(52, 사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에서 '창명호' 선주인 이창덕씨가 낚시포탈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올린 바다낚시 정보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이씨는 자세한 물고기 어획정보를 사진과 함께 1주일 단위로 낚시포탈사이트인 '디낚(www.dinak.co.kr)'에 올린다.

이씨가 올린 정보는 전국 바다낚시마니아들에게 큰 매력을 던져줘 건당 평균 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말이면 공현진항에 관광버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와 우덕 등이 잡힐 때는 주말마다

40~50명의 낚시객들이 찾고, 어구가자미가 올라 올 때는 150명의 낚시객들이 줄을 잇는다.

이 때문에 어한기인 요즘에도 공현진은 주말마다 낚시관광객들로 붐빈다. 낚시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인근 오토리나 가진에도 낚시배를 소개시켜주기도 한다.

이씨는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낚시객들

에게 무료로 물회와 도루묵, 양미리 등을 제공해 준다.

이씨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어획정보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공현진 토박이인 이씨는 친형인 이창식(54, 창명낚시운영)씨와 형제간 우애가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현진에 함께 사는 이들은 서로가 번 모 든 수입을 한 통장에 넣어 관리하며 각자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같은 제품을 2개 구입할 정도로 우애가 남다르다.

이들 형제의 노인 공경도 남다르다. 동생인 이창덕씨는 2008년 3월 로또복권 3등에 당첨돼 받은 110여만원(세액 제외)에 사비까지 보태 마을 노인정 어르신들 모두에게 막국수를 대접하기도 했다.

이창덕씨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맏이인 형이 가장 역할을 하며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지금도 저에게는 형이 아버지 같은 존재다”며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집사람이 형수님과 잘 지내고, 홀로 계신 어머니도 잘 모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이흥수 기자

속초세무서

김기운 운영지원과장 퇴임

김기운(사진)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속초세무서 대강당에서 채용생 속초시장, 최평규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가수 4명과 5월의 이지민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양양 출신인 김기운 운영지원과장은 1976년 1월 속초세무서에서 근무를 시작, 국세청 조사국, 강남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2월 11일부터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장재환 기자

속초양양교육청 인사발령

(괄호 안은 전직)

- ◆행정직 ▲김벽래 양양초(속초여고) ▲노송순 영랑초(평창 횡계초) ▲김상기 양양여중(강릉교육청) ▲김기덕 속초양양교육청(강릉교육청) ▲정홍식 양양중(삼척 임원초) ▲이효은 설악초(동해상고) ▲조정은 회통초(동광중) ▲안은희 양양도서관(강원도교육연수원) ▲신금이 설악여중(인제 원통초) ▲조옥란 속초양양교육청(설악초) ▲전영신 산호유(속초양양교육청) ▲이미정 남매초(양양중) ▲정희연 현북중(남매초) ▲전성민 속초여중(속초양양교육청) ▲박진영 청봉초(회통초) ▲이현숙 양양초(산호유) ▲최현주 속초양양교육청(양양초) ▲최희진 중앙초(속초양양교육청) ▲박지현 속초양양교육청(중앙초)
- ◆기능직 ▲박명희 속초여중(속초평생교육정보관) ▲김미영 양양여중(강원외국어교육원) ▲김현주 조산초(속초평생교육정보관) ▲김정아 속초양양교육청(승진) ▲정동기 속초양양교육청(승진) ▲이창수 속초양양교육청(승진) ▲최종우 현북초(승진) ▲김영용 설악여중(영랑초) ▲신영운 강현초(소야초) ▲이재덕 소야초(교동초) ▲최춘득 설악여중(속초중) ▲김용식 조양초(설악여중) ▲김용길 속초중(속초여중) ▲정선길 영랑초(설악여중) ▲윤봉관 현남중(조양초) ▲정복인 교동초(조산초) ▲박운문 속초도서관(신규) ▲박상호 속초양양교육청(신규), 이상 37명. 2010년 1월 1일자.

속초 출신 솔로몬산업(주) 유종국 대표이사

‘모범 장애인기업’ 중기청장 표창

속초 출신 솔로몬산업(주) 유종국(사진, 속초중 20회)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26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제4회 전국장애인경제인대회’에서 중소기업청장 표창(모범 장애인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유 대표이사는 특허등록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벤처기업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등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장애인경제인의 지위향상과 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2006년 설립된 솔로몬산업(주)은 방음벽, 방음터널, 소음간섭 장치, 난간, 펜스, 울타리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연 매출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점차 사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에, 공장은 대포농공단지에 두고 있다.

유 대표이사는 현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어린이재단 후원회 부회장, 재

경속초중고 총동문회 부회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강원도민회 이사, 재경속초시민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유 대표이사는 특히 김정고시 수기집 편찬위원회가 전국김정고시총동문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김정고시 출신들의 아름다운 도전이야기를 담아 펴낸 수기집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의 집필에도 참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 무한한 행복, 소나무처럼 살리라’를 쓰기도 했다.



이우철 기자

공무원 6백여명 배출, 사회복지사 2천명 양성(영동권 최초), 건강가정사 400명 양성(강원도 최초)
상담심리전공 신설(강원도 최초), 전국 취업률 3위 기록...

동우대학 사회복지학부에게 길을 묻다!

- 정시모집 기간 : 2009. 12. 18(금) ~ 2010. 1. 20(수)
- 합격자발표 : 2010. 1. 27(수)
- 접수방법 및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입학원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등 모집요강 참조
 - 접수방법 : 본 대학 홈페이지 www.duc.ac.kr 참조
- 연락처 : 033) 639 - 0560~2

● 모집인원

구 분		정 원	주 간	야 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부	200	120	80
	상담심리전공			
	일반행정전공			



29년 전통의
동우대학 사회복지학부
SCHOOL OF SOCIAL WELFARE

“포스팅이 바뀌었습니다.”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간호 · 보건 · 의료 특화대학
9년간 최저 92.4% 이상 취업률을 달성한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가
간호 · 보건 · 의료 특화대학으로 한걸음 더 도약합니다.

2010학년도 편입학모집

- 관광학부 : 관광경영학, 관광통역학, 호텔경영학, 외식사업경영학
- 사회복지 경영학부 : 사회복지학, 경영학
- IT공학부 :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대명레제IT), 의료기기학(연계전공), 컴퓨터통신공학(계약학과)
- 건축토목공학부 : 건축학, 토목환경공학
- 학과제 :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디자인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해양심층수학과
- 사범계열 : 유아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국어교원과
- 보건계열 : [신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의료기기학(연계전공)
- [기존] 작업치료학과(중원), 안경광학과

*2010년 1월 11일(월)부터 원서접수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

■ 주소 : (217-600) 강원도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 제67호 ■ 전화 : 033-6390-114 ■ 팩스 : 033-6390-117 www.k1.ac.kr

수능교육 1번지
단과 입시 전문학원



하버드 학원



성실하고 힘 있는 교육의 사명감으로 우수한 학생이 모여
꿈의 나라를 마음껏 펴는 배움의 터전으로 꾸준히 일구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겨울방학특강

12월28일 개강

- 초등부 - 그룹 3명
- 중등부 - 그룹 3명
 - 평일반 3회 수업(90분)
- 고등부 (수학, 외국어, 사탐, 과탐) - 그룹 3명
 - 고1, 고2 : 3회 수업(90분)
- 주말특강반-고3 A(3명) 고3 B(3명)

축
합 격
포항공대

(속초고 3) 김태완



속초시 교동 교동초등학교 정문앞 | 교육상담 : 033)637-7002, 010-6644-9080, 070-8847-7002

2009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선정

영북지역 환경 10대 뉴스

1. 청초호, 각종 개발로 몸살

속초시는 청초호에 계류시설을 비롯 해 클럽하우스, 요트정비소, 주차장 등의 마리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11월 속초항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의장 장석근)은 청초천 하구 일대를 조류생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넓게 항만구역에서 제외하고, 구역출입금지 등 조류보호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속초시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해상공원과 부교설치는 호수를 망가뜨리는 인위적인 시설물로 많은 생명이 함께 사는 청초호에 부적절하다는 뜻을 11월 12일 속초시에 전했다.

2. 속초시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발바리'(가칭)와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가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속초시 자전거이용실태 및 이용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3. 척산온천개발사업 논란

척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원주환경청은 지난 3월, 속초시와 지역주민, 사업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이용협의체를 통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과 청초호 수질관리 2등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했다. 그러나 속초시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물이용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운영되기도 전에 강원도로부터 척산온천관광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 속초 중앙로 가로수 제거,배전함 등장

속초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과 관련, 오랜 세월 중앙로에서 잘 자라던 속초시목(市木) 은행나무는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옮겨졌다. 도로변의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며 등장한 배전함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상가를 가려 상인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었다.

5. 자연공원법 완화로 케이블카 난립 우려

현 정부는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안 2Km 이하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 설치규정을 5km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서둘렀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5월10일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서명활동을 벌이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6월 7일 설악산 대청봉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6. 무모한 청초천 준설, 영랑호 갈대 제거



속초시는 2000년부터 청초천을 준설해오고 있으나 금년에는 필요 이상의 준설작업이 이루어져 문제가 되었다. 또 개개비가 번식하는 시기인 5월에 대규모의 영랑호 갈대밭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갈대 제거 중단을 요청했다.

7. 군사격장 확장, 주민강력 반발

고성군 토성면에 주민과 행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일방적으로 사격장 확장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포사격장 확장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군과 주민들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8. 속초지역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에서 10월 15일 '속초지역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속초지역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1년에 30억 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속초지역도 의무 교육대상인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거리선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9. 송지호 해안사구 훼손 최소화

환동해출장소와 고성군은 죽왕면 오봉리 9-11번지에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를 건립하려했으나, 해안습지 및 해안사구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원주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부지로 옮겨졌다. 이에따라 송지호의 갯터짐을 유도하고 환경적 보전 가치가 큰 석호를 지켜냈다.

10. 해안 개발사업, 자연재해로 나타나

대포항만 공사와 방파제 공사, 영랑동 해안침식방지사업 등의 각종 해안개발사업과 구조물 설치로 인한 여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속초해안의 자연스런 모래이동이 막힘에 따라 속초해수욕장은 점차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또, 대포동 외옹치항은 상습 너울성 파도로 위험지역이 되고 말았다.

출향인 소식

재경양양군민회 송년회 개최



재경양양군민회(회장 이명래)가 12월 2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선릉역 상제리체부페웨딩홀에서 출향 양양군민과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김동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에서 김경주 대흥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소설 '절반의 실패' 작가 이경자씨가 자랑스런 양양인상을 수상했다.

설악산 인지도 '최고'

설악산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으로 선정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 4일~9일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준오차 ±3.10%) 설악산이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96.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4.6%의 지리산, 3위는 88.3%를 기록한 한라산으로 조사됐다. 설악산은 지난해에도 98.4%로 으뜸에 올랐다.

이우철 기자

청정양양21 환경작품집 펴내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회장 추상호)가 관내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기후변화대응 글짓기 대회 작품모음집을 펴냈다. 추상호 회장은 "올해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해 청정양양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전국 최초 신설학과” 보건교육사 1, 2, 3급 / 국가공인자격증(보건복지가족부)
 성폭력상담사, 금연상담사, 가족폭력상담사, 건강가정사, 청소년지도자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업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체, 건강?의료관련기관, 학교 등에서 공중보건교육, 질병예방교육, 건강상담, 성교육, 금연, 금주상담 교육, 가정폭력상담

- 보건교육사업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수행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건강교육 및 상담
- 방문보건사업에서의 건강상담 등

특별전형

간호사, 지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병원 및 보건소 등 의료기관 경력자
 사회복지 및 위생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병원코디네이터 등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처

보건교육연구분야

보건소, 보건진료소, 중, 대형, 요양병원, 학교(초, 중, 고, 특수학교), 산업체, 시, 도 보건위생과, 청소년상담소,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공단, 예방치료센터

보건의료관리분야

금연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보건행정/경영분야

보건직공무원
 노인복지시설기관
 보육시설기관

보건홍보사업분야

e-Health Care 기획컨설턴트, 건강증진광고기획자, 보건교육매체 Health Fair 플래너, 시민단체보건캠페인기획자, 보건관련전문기자

미국, 일본 보건교육사 현황

미국
 국가에서 공인한 보건교육 전문가 (Certified Health Education Specialist: CHES), 보건교육사(Health Educator)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병원 및 산업체, 학교, 보건소 등에서 활동.

일본
 일본의 보건교육사는 건강교육의 실천과 그 평가를 행하는 실천건강교육사와 실천건강교육사를 양성 지도하는 '전문건강교육사'로 구분하고 2003년에 "일본 건강교육사 양성 기구"를 설립하여 건강교육사를 양성·활용하고 있다

건강은 치료에서 예방교육으로.....

Dept. of Health Educator
보건교육사 학과

취업률 100% 도전
동우대학
 DONG-U COLLEGE

입학상담 <http://health.duc.ac.kr>
 033-639-0640/010-6356-3473

24년 전통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유림퍼니처

<http://urimfurniture.koreasme.com>

사무용 OA가구, 싱크대, 불박이장, 소파, 신발장 및 주문제작가구는 24년의 축적된 기술과 10여명의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유림퍼니처 공장에서 직접제작판매



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인증 사무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 대포농공단지내에 최신기계설치 및 공장등록완료 유림퍼니처는 검증된 제조업체로서 24년의 전통과 기술력으로 설악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history

- 2009 속초시 대포농공단지내에 공장이전 및 최신기계설비 구축과 공장등록 완료
- 2007 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인증 사무용가구, 주방가구 직접생산확인업체등록
- 2007 유림퍼니처로 상호변경 후 관공서/공기업 사무용가구 직접생산납품에 주력
- 2002 강원도가구협동조합 가입 및 일반가구, 주방가구, 사무용가구의 전문생산공장으로 생산라인 구축
- 1996 유림가구로 상호변경 후 속초시 영랑동 188-1번지에 가구제작 공장 설립
- 1990 유림소파로 상호 변경 후 영동지역에서 최초로 소파제작 전문공장 설립
- 1986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92-1번지에 영랑 의자수리센터

본사 및 제1공장(영랑동)



농공단지 제2공장(대포동)



TEL : (033) 631-3189, 632-3640, FAX : (033) 637-3189
E-MAIL : yej602@naver.com

설악기타사랑 · 풀니음시낭송회 자선공연

속초연탄은행에 396여만원(연탄 7천9백여장) 전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들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설악기타사랑(회장 원영백)과 풀니음시낭송회(회장 박혜성)는 지난해 12월 26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자선공연'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속초연탄은행에 쾌척했다. 금액은 396만2000원으로, 연탄으로 환산하면 7924장이다.

김상복 회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두 단체의 도움으로 좀 더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설악기타사랑과 풀니음시낭송회는 단체별 공연과 함께 합동 공연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속초시축구협회와 이정 종합광고에서도 후원했다.

2009년12월11일 ~ 2009년12월30일 후원 현황

△이호승 80장 △(주)속초합동상사 100장 △최미숙 20장 △이해성 80장 △김순애 147장 △

송제일내과(전종민 원장) 2000장 △김상복대표 1000장 △설악로타리클럽 1000장 △유니베라 1000장 △최효섭 60장 △채용생 40장 △영북지역합신조(Y.B.G) 1000장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1376장 △성은한식 80장 △영권설 임영준 400장 △최영순 60장 △강릉MBC 2000장 △매듭(박재덕) 600장 △속초아시아구심판위원회 1000장 △유현숙(한마음한의원) 360장 △백명기

100장 △김현옥 40장 △김만중 40장 △이정기 200장 △한미화 40장 △속초세무서 사랑나눔봉사회 1200장 △강원일보복지재단 3000장 △이모네식당 200장 △한국도로공사 설악연수원 2000장 △해양경찰서 디딤돌봉사회 1000장 △설악고등학교 3학년 전문계열 학생일동 221장 △속초농협농기주부모임 1000장 △유정숙(한마음치과) 240장 △임영은 20장 △강원부속 100장 △MG새마을금고 느티나무봉사단 5,000장 △설악기타사랑·풀니음시낭송회 7924장 △참고문치과(이원일 원장) 500장 △한국애견협



연탄나누기 자선공연을 마친 뒤 설악기타사랑과 풀니음시낭송회 관계자들이 김상복 대표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회 속초지회 400장 △속초어업정보통신국 400장 △연세필치과 500장 △설악여중 3학년 1?2?5반 481장, 총 37909장.

* 후원안내 연탄1구좌 100장 50,000원/쌀1구좌 10kg 24,000원 △농협(251-01-357994)△국민은행 (692101-01-087473)△우체국 (20230901-001324)△중소기업은행평생계좌 (033-632-0122) ▲예금주 속초연탄은행(대표 김상복) <문의 및 자원봉사 신청 632-0122 >

(http://www.sokchobank.com)

이우철 기자

양양 희망나눔 열기 '후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양양지역의 희망나눔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양양군에는 지난 12월1일부터 30일까지 총 5,290만원(현금·현물 포함)이 답지했다.

군은 지난 12월24일 양양시장에서 각급 단체들과 주민들이 참여한 '2010 희망나눔캠페인 순회 가두 모금' 행사를 열고 희망나눔 열기를 이어갔다.

양양초등학교(교장 전관홍)도 지난 12월17일부터 각 학급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모은 성금 61만 5,400원을 양양군에 기탁했다. 김주현 기자

현남면여성의용소방대

마을회관 어르신들 위로



현남면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용자)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관내 마을회관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김용자 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12월 24일 현남지역 마을회관을 찾아 겨울철 사랑방인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정을 전했다.

김용자 현남면여성의용소방대장은 현재 양양군새마을문고회장도 맡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고성여협 "요리로 다문화 이해"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연자)는 지난 12월 30일 하늘땅지역아동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들과 여협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리를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지역에서 거주하는 4개국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국가별 전통요리 1개씩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다. 또 음식을 만든 뒤에는 국가별

로 특색있는 음식과 요리법, 식사예절 등을 소개하고, 서로 간단한 인사말과 각국의 동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고성여협은 28일 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정 160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오락과 가족소망나무 만들기 등 이벤트를 열었다.

이용수 기자 ellan92@goseong.org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2월 28일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어울림마당 이벤트를 열었다.

24시간 영업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설악불한증막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지켜 줍니다!

새롭게 단장한 설악불한증막은 천연의 향기 소나무와 동해바다 해수 그리고 약쭉만을 사용하는 전통 재래식 한증막입니다.



약쭉



소나무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26(물치 육교 농협 뒤) | TEL : 033)671-8852, 672-4285 | www.firesauna.com



재경동광중 · 농공고등학교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이 · 취임식

초대합니다. 신종플루로 어수선 했던 2009년 안애가 거울에 가고 있습니다.
 동문 가족 모두 올 안애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의망의 2010**년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애가 지는 줄도 모르고 눈 설매 타고 열음을 지치던 어린시절의 친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아직도 그 시절이 또렷이 기억에 남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뵙고 싶습니다. 동문 여러분!**
 동광 정기총회 및 회장이 · 취임식에 오시면 그 아름다운 날들이 고스란히 동문님들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동광의 모든 동문들을 만날 것을 기원합니다.

일시 2010년 1월 9일(토) 오후 6시
 장소 한강관광호텔 대연회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88-2
 전화 02-453-5161-5

재경동광중 · 농공고등학교총동문회

이 임 회장 **송 태 민** 배상
 취임 회장 **이 일 균** 배상

재경동광중 · 농공고등학교총동문회 10대임원진

회장 이일균(20회) 수석부회장 원연석(21회) 수석감사 김준태(20회) 부회장 김태진(20회) 오종열(21회) 김광수(21회) 김용기(21회) 박남국(22회) 송삼용(23회) 여성부회장 어영숙(22회)
 재무이사 정원섭(24회) 운영부회장최승명(25회) 사무차장원종성(30회) 총무 박만철(35회) 경조이사 채정운(25회) 체육이사 고인철(29회) 민경이사 윤성룡(29회) 홍보이사 김병남(29회)
 의전이사김창호(30회) 문화이사윤홍진(30회) 체육간사김영민(30회) 윤덕천(30회) 여성간사임미선(25회) 김영숙(25회) 김선민(25회) 안영란(25회) 책금관리(25회) 백금숙(25회) 송옥신(25회)
 고문 이정기(10회) 최영선(16회) 김천금(18회) 박동원(18회) 송태민(19회) 자문위원 김수철(18회) 지승연(19회) 전정수(19회) 홍석만(20회)

운영부회장 최승명 011-748-8515
 사무차장 원준성 016-9701-1679
 총무 박만철 011-703-8883
 총동문회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통교동 185-6 대산빌딩 7층
 전화 02) 2633-8515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효를 받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祖上을 섬겨라



청명 · 한식 4월5~6일 맞이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성석재에 납골당 · 각종상석 · 비석 · 도래석 · 석등 · 건축석 · 석탑 · 불상 · 석축 등을 문의하십시오.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납골당/석물/비석/상석/탑/석등/불상/특수조각/건축시공/석재예술 전문업체

신성석재

대표 윤택규(88년 전국기능대회 은상수상)
 속초시 조양동 1409-2(속초축협건너편)
 ☎633-6579/011-375-6579 FAX.632-0081

설악산 신흥사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모집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해맑은 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화음에 담아 아름다운 선율로 음성공양하는 "설악산신흥사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에서는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전문 합창단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인원 합창단원 약간명 대상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속초지역)
- 방법 실기(오디션-자유곡1곡)및 면접에 의한 공개모집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9년 12월 16일 ~ 2010년 1월 4일 (전화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입단원서(사진부착), 악보(오디션때 부를 자유곡 1곡)
- 실기 및 면접 전형 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신흥사 포교당 원각사 (영랑동 소재)
- 접수 및 문의 신흥사 소년소녀합창단 사무국(637-7044)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 설악산신흥사



이반칼럼



이반
극작가, 前 숭실대 교수

범바위에 서서

2010년 경인 새해를 하루 앞두고 속초 영랑호반의 범바위에 오른다. 60년 만에 돌아 온 백호의 해다. 아직 동강 난 국토는 불을 줄 모르는데 새해는 찾아온다. 영하 10도에 가까운 기온인데도 바람한 점 없는 평온한 풍광이다. 추위와 바람을 피해 영랑호반 갈대 숲 가에서 놀던 백로도 재두루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많던 오리와 갈매기는 어디로 갔을까? 범바위에 서서 서쪽 장천 쪽을 보니,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던 백로도 자취를 감췄다. 영랑정에 기대어 동쪽을 바라보니, 푸른 바다가 한가롭다.

호랑이가 시베리아 대륙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 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 금강산을 지나 쉬던 자리 또는 지나던 길목이라서 범바위라고 이름지었다는 설이 있고, 영랑호 호숫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바위 모습이 영락없는 거대한 범이라서 '범바위'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한반도의 형체는 '호랑이'다. 일제시대에는 '토끼'라고 해서 일본인들은 애써 호랑이가 지니고 있는 용맹성이나 민첩성을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한민족의 기상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우리는 근대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본 모습이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자각하면서 세계 속에서 '호랑이'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의 호돌이의 역할은 '호랑이' 한민족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알린 좋은 계기였다. 우리의 호랑이는 용맹을 떨치는 백수의 왕으로 무서운 짐승만은 아니다. 민화 속의 호랑이에게는 애교가 있고 웃음이 있고 자애가 있다. 호랑이가 담뱃대를 들고 있고, 까치와 놀고 웃고 있다.

일본 시인 모리다 스스무(森田 進)씨는 한반도를 유방반도로 보고, 시집이름을 '유방반도'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한반도를 통해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반도가 주는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에게는 '호랑이'와 같은 용맹스러운 기

상이나 '토끼'와 같은 겁쟁이의 모습, 유방과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 등이 겹쳐져 있다.

2002년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들의 응원 행진, 2009 아랍 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분명 우리의 혈관 속에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이 흐르고 있음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운동 시합에 나갈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간에 결의를 다질 때 우리는 쉽게 '화이팅'을 외친다. '열심히 해 보자' '잘 하자' '성실히 해'라는 격려인데 '화이팅'까지 외쳐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지나치게 경쟁이나 공격성이 강한 말이라서 염려스럽다.

우리의 지난 100년이 호랑이의 용맹과 기상으로 생존해 온 한 세기였다면 2010년부터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까? 생각한다. 내년은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 지 백년이 되는 해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매우 뜻이 깊고 특별한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으로 여겨진다. 국력이 약한데다 열강들의 야욕이 하늘을 찌를 때 당한 치욕이다. 우리는 식민 시대를 겪고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유일한 민족이다. 호랑이의 민첩함과 용맹은 새해 새날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얼굴, 또 하나의 정신이 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웅녀의 정신이다. 웅녀는 모진 세월을 참으며 살았다.

한 민족의 탄생을 방해하는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참으며, 인고의 터널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았다.

참기 힘든 일, 화나는 일이 계속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고 또 참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정신이다.

호랑이 등을 타고 서서, 곰의 인내를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하자. 웅녀는 어머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다.

| 사설 |

6·2지방선거, 성숙한 지방자치로

2010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새해엔 새로운 지역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공명정대하고 성실히 임해야 하겠다.

안타깝게도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여전히 유지돼 후보자들이 정당에 줄을 서지 않을까 우려되고, 고성과 양양군은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 주민 대표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염려가 든다. 사실 작은 지역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실제 지역 일이라는 게 정당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물론 지역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지역 살림을 꾸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지역주민의 이해에 반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정당인이든 비정당인이든 지역과 주민의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보면 정책은 뒷전이였다. 이는 후보들이 정책을 중시하지 않고, 유권자들 또한 정책 보다 학교나 지역 연고, 사적 친분을 중심에 두고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정책을 내고 재임기간 중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권자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지방자치 사례를 보더라도 누가 되든 똑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지자체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장·군수나 기초의원은 중심에 있다. 지역 일꾼을 잘못 뽑으면 소중한 혈세가 주민들과 아무 상관없이 헛되게 쓰일 수 있다. 지방선거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후보들의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후보들도 지금부터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설악신문 1990년 5월28일 창간 / 1992. 6. 12 제3종 우편물(가)인가

- 창간이념 : 지역사회와 문화의 활성화, 생활정보의 전달, 주민을 위한 신문
 - 발행·편집인: 박명중 · 전무이사: 고영진 · 편집국장: 장재환
 - 인쇄처 : 강원도민일보사
 - 편집 광고국 : tel. 033. 636-2222, fax. 033. 636-2227
 - 등록번호 : 1990. 3. 16 강원 다 01008
 - 구독료 : 월 3,500원 / 1년 4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가슴을 적시는 광고

“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

이정종합광고

EJad Ejung total advertising

● 저렴한 가격으로 귀사의 아이템을 광고해 드립니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합니다!

TEL 631-9831~2
FAX 631-9833 공평 636-8966

태광디자인

Taegwang design POWER ON

● 최고의 디자인~최상의 요가를 누리십시오!
● 고객의 광고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

TEL 632-1100 (4F)

감각있는 디자이너들과 발빠른 시공팀이 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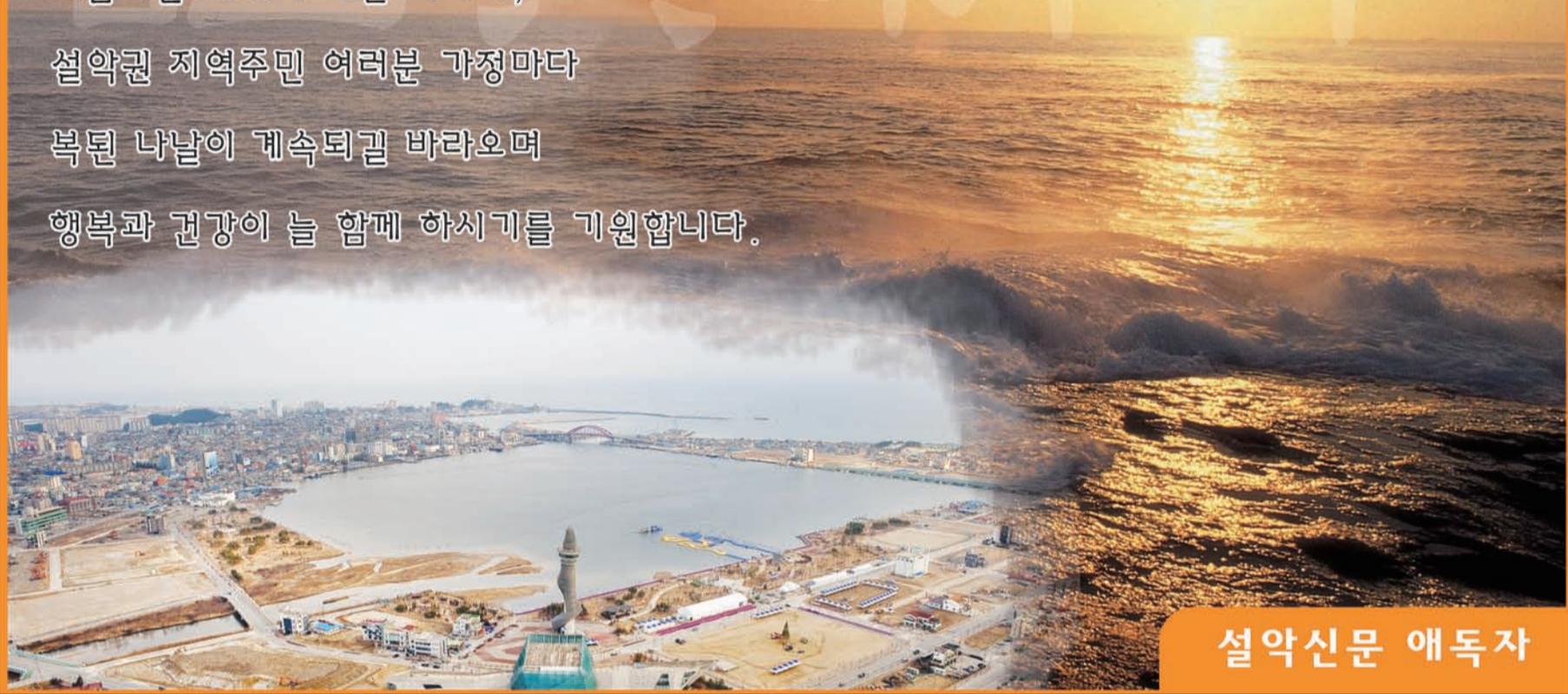
愛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www.ejad.kr

희망찬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아오는 새해에 항상 행복한 일들 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길 바라며,
설악권 지역주민 여러분 가정마다
복된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오며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악신문 애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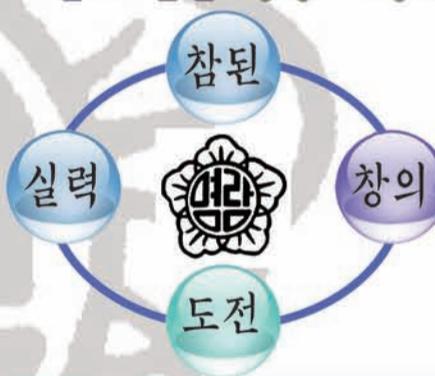
영랑초등학교 동문 자녀 모교 보내기 및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응골찬 배움, 사랑(四郎)을 실천하는 영랑초등학교로 오세요!

◆ 희망 주고 신뢰 받는 영랑 사랑(四郎)교육 ◆

- 지역 인재 육성의 초석, 영랑초등학교로 오십시오.
-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
- 맞춤형 학력 관리 프로그램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 안내 및 전입생 상담〉
 ☆ 신입생 예비소집일 : 2010. 1. 14. (목) 10:00
 ☆ 신입생 입학식 : 2010. 3. 2. (화) 10:30
 ☆ 전입생 : 언제든지 영랑초등학교로 오세요.
 ☆ 문 의 : 영랑초등학교 교무실 ☎ 633-8587)



- 영랑초등학교에만 있어서 더욱 자신만만합니다.
- 교육, 돌봄, 상담 시스템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야구부와 관악부 육성으로 명문 초등학교 육성

영어체험센터



원 어미과 함께 영어공부를 해요.

토요테마학습



토요휴업일에는 체험학습을 떠나요.

종일돌봄교실



방과후부터 밤 9시까지 엄마처럼 보살펴요.

학생공감상담실



전문상담가가 삶을 설계해 주어요.

야구부



저국 최강을 위해 박찬호의 꿈을 키워요.

관악부



1인 1악기 여주로 특기를 길러요.

영랑초등학교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영랑초등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합니다.